

서귀포 칠십리

우리나라 최남단의 도시 서귀포는 넓게 펼쳐진 푸른 바다와 아담한 섬, 시원한 폭포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고장이다. 서귀포 칠십리는 옛날에는 거리의 개념이었지만 지금은 아름다운 서귀포를 상징하는 이상향과도 같은 말이 되었다. 자연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서귀포의 이야기를 만나보자.



칠십리로 | 서귀포시 서흥동 684 ~ 서귀포시 하효동 629(약 7.7km)

천지연로 | 서귀포시 서귀동 752-9 ~ 서귀포시 서귀동 596-1(약 0.6km)

솔동산로 | 서귀포시 서귀동 580-3 ~ 서귀포시 서귀동 655-7(약 0.5km)

부두로 | 서귀포시 서귀동 556-15 ~ 서귀포시 서귀동 786-8(약 0.6km)

소암로 | 서귀포시 서귀동 553-2 ~ 서귀포시 서귀동 92-1(약 0.4km)

정방연로 | 서귀포시 토평동 580-1 ~ 서귀포시 동흥동 68-12(약 0.8km)

검은여로 | 서귀포시 토평동 472 ~ 서귀포시 토평동 1245-5(약 3.3km)

칠십리로 | 서귀포 칠십리

칠십리는 서귀포항에서 하효동까지 이어지는 길을 말한다. 칠십리의 유래가 된 '서귀포 칠십리'는 흔히 서귀포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다. 서귀포의 양끝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말은 서귀포가 성읍의 정의현청이 있던 곳에서 서쪽으로 70리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생겨났다. 거기다 1930년대 후반 남인수가 부른 '서귀포 칠십리'라는 노래가 유행하면서 사람들 사이에 이 말이 더욱 퍼지게 되었다. 지금은 서귀포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을 상징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다. 매년 가을에는 칠십리축제를 열어 서귀포 칠십리의 이미지를 이어나가고 있다.

천지연로 | 천지연폭포



천지연폭포

천지연로는 세계지질공원 명소인 천지연폭포를 의미하는 길이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라는 뜻의 천지연폭포는 매년 1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유명한 폭포이다. 12m 높이에서 떨어지는 폭포수는 답답한 마음을 단번에 시원하게 해준다. 그래서 옛날 제주에 부임한 목사들도 이곳을 들러 폭포를 감상하곤 했는데, 이형상 목사가 남긴 <탐라순력도>에는 천지연폭포를 배경으로 삼아 활쏘기를 즐겼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천지연폭포의 명물은 무태장어이다. 더 이상 큰 장어가 없다는 뜻의 무태장어는 바다와 민물을 오가는 독특한 물고기이다. 크기가 2m에 이를 정도로 크게 자라는 무태장어는 천지연폭포에서 지내다 동남아시아 부근의 바다로 가서 알을 낳는다. 그리고 알에서 태어난 새끼들은 해류를 따라 다시 천지연폭포로 돌아온다. 수천 킬로미터에 이르는 여정을 오로지 본능만 가지고 해내는 무태장어들은 생명의 신비를 보여준다. 야행성인 무태장어는 낮에는 숨어 있다가 밤에 주로 활동하지만 운이 좋으면 낮에도 무태장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천지연폭포 주변은 담팔수나무 자생지로도 알려져 있다. 열매의 맛이 쓸개(膽)처럼 쓰고, 나뭇잎이 팔자(八)처럼 생겨 담팔수(膽八樹) 나무라 불리는데 북쪽 지역으로는 서귀포까지만 자란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해서 보호하고 있다.

솔동산로 / 부두로 | 서귀진

칠십리로가 지나는 송산동(松山洞)은 소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특히 서귀포초등학교 부근은 개발되기 전에 소나무 숲이 울창한 동산이었는데 그곳을 솔동산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솔동산로**는 옛날 이 지역의 솔동산을 지나는 길이라는 의미이다.

솔동산로와 나란히 나 있는 **부두로**는 서귀포항으로 내려가는 길이라는 의미이다. 서귀포항은 고려시대 원나라로 향하던 배가 순풍을 기다리던 후풍처로 사용했다는 이야기가 있어 꽤 오래 전부터 사용되었으리라고 추정하고 있다. 오늘날 서귀포항은 고기잡이 배들과 화물선이 주로 드나들고 있다.

솔동산로와 **부두로** 사이는 옛날 서귀포를 방어하던 서귀진성이 있었던 곳이다. 서귀진은 제주에 마련됐던 3성 9진 중 하나로 왜적을 대비해 서귀포 앞바다를 감시하는 역할을 했다. 옛날 이곳은 정의현에 속했다. 정의현감은 성읍에서 출발해 칠십리에 걸쳐 정의현 순시를 하고 이곳에서 마무리했다. <탐라순력도>의 서귀조점편에서 과거 서귀진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이 그림에는 목사가 군사와 말을 점검하는 모습을 비롯해 서귀진의 동문과 서문의 위치, 성안의 여러 건물들이 그려져 있다.

소암로 | 소암 현중화

소암로는 제주출신의 서예가인 소암 현중화 선생과 관련된 길이다. 서귀포 법환동에서 태어난 현중화 선생은 어릴 적 일본으로 건너가 서예를 본격적으로 배웠다. 일본의 공모전에 여러 번 수상하면서 서예가로서 인정받기 시작한 선생은 1950년대 후반 한국에 돌아와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제주소목회 모임을 만들어 많은 제자를 길러내었고, 1997년에 돌아가실 때까지 왕성한 작품 활동을 했다. 그런 공로를 인정받아 제주도문화상을 수상했다. 현중화 선생이 돌아가신 지 10주기와 더불어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서귀포시에는 2007년 소암기념관을 마련했다. 이곳에서는 선생의 여러 작품들을 비롯해 생전에 살았다는 조범산장의 모습과 관련 유물들을 전시해 놓고 있어 예술로 일가를 이루었던 현중화 선생의 삶을 기리고 있다.



소암 현중화



정방폭포

정방연로 | 정방폭포

소암로 동쪽으로는 정방로와 **정방연로**가 동홍천을 사이에 두고 나란히 칠십리로와 이어진다. 정방로는 정방폭포가 있는 정방동을 지나는 길이라는 의미고, **정방연로**는 정방폭포로 가는 길을 의미해서 둘 다 정방폭포와 관련된 이름들이다. 정방폭포는 다른 폭포들과 달리 폭포수가 바다로 직접 떨어지는 것으로 유명하다. 한여름 20m가 넘는 높이의 절벽에서 쏟아지는 물줄기는 오감을 시원하게 한다. 그래서 옛 사람들도 정방하폭이라 해서 영주십경 중의 한 곳으로 꼽았다.

정방폭포는 서복이 다녀간 곳으로도 알려져 있다. 중국 진시황 때의 사람인 서복은 황제의 명으로 불로초를 찾기 위해 동남동녀를 데리고 제주를 방문해 신선이 사는 산으로 여겼던 한라산을 올랐다고 전한다.

정방폭포의 한 쪽 벽에는 서복이 남겼다는 글씨가 복원되어 있다. 서귀포라는 이름도 서복이 서쪽으로 돌아갔다는 뜻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서복과 서귀포는 많은 인연이 있는 곳이다. 정방폭포 옆에 있는 서복기념관에는 서복 관련 전설과 유물을 전시하고 있어 중국과 제주의 오랜 인연을 안내하고 있다.

검은여로 | 검은여 해안경승지

정방연로를 지나 칠십리로를 따라 조금 더 가면 **검은여로**가 나온다. **검은여로**는 해안절경이 뛰어난 거문여 해안경승지로 가는 길이라는 의미이다. 검은여의 바닷가에는 검은색의 너럭바위가 넓게 자리잡고 있다. 제주에서는 이렇게 용암이 굳어 넓게 형성된 바위를 빌레라고도 부른다. 왠지 낯선 관광지에서 벗어나 조용히 바닷가의 정취를 만끽하고 싶다면 검은여 해안 경승지와 더불어 아담한 폭포와 기암절벽이 어우러진 소정방폭포의 해안가를 거닐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